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선거일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8일 오후 대구 반월당역 인근에서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8일 대전 충남대 캠퍼스를 찾아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8일 서울 신촌 유플렉스에서 필리버스팅 유세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文 “압도적 지지로 개혁 도와달라”

安 “대역전... 변화·미래 선택해달라”

부산·대구·청주 거쳐

서울 광화문서 대미 장식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자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숨 가쁘게 달려왔던 대선 여정을 마무리했다.

전날 강원과 충청에 이어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찾았던 문 후보는 이날 부산과 대구, 청주를 거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며 이를 통한 'X자' 형태의 동선으로 전국을 훑으며 대미를 장식했다.

문 후보가 선거운동에 돌입한 지난달 17일 불모지 대구를 시작으로 전날까지 밟았던 길은 모두 1만km를 넘어서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끌고구 지지받고 전 세대에서 지지받는 사상 최초의 통합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개혁과 통합의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문 후보 측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지난 3일부터 이어져 온 ‘깜깜이’ 국면에서 온갖 흑색선전이 난무한 속에서도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전통적인 지지층과 함께 중도층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모았다.

특히 선거 막판 보수결집 현상이 눈에 띄면서 선대위에서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기류도 강했다.

유은혜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бри핑에서 “5월 9일 8시까지 한 번 더, 한 사

람 더 통화하자는 의미에서 ‘598 투대문(투표해야 대통령은 문재인) 한 번 더’ 캠페인을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유세를 부산에서 시작, 대구로 이어가면서 선거 막판 영남에서의 보수 결집 현상을 저지하고 대세론을 확산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정치적으로 보수 유권자가 많으면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충청의 청주를 방문해 한 표 행사를 호소하고, 저녁에는 조기 대선을 불러온 촛불민심의 산실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마지막 대국민 유세를 마쳤다.

이후 문 후보는 밤늦게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아동노동자 쉼터를 방문, ‘서울 시민들과의 만남’ 행사로 22일 동안의 선거운동을 끝냈다. /임동욱기자 tuim@

대전 유세 대장정 마무리
“편 가르느 정치 끝장내자”

지난 4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4박5일간 도보 유세를 벌여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일 오전 일찍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방문과 옛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노원구의 출근길 시민 인사와 어버이날을 맞아 양로원 방문 등을 통해 선거 운동 마지막 날 일정을 시작했다.

안 후보는 특히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유세에 민주당 문 후보와 한국당 홍 후보를 겨냥, “(선거에서) 어느 쪽을 뽑아도 국민은 분열된다. 앞으로 5년 내내 광장은 분노한 대중의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편 가르느 정치는, 서로 중요하고 반대만 하는 정치는 이제 끝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프랑스 대선에서 의회 내 지지기반이 없는 중도신당의 에마뉘엘 마크롱(39)이 역대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실을 거론하며 “시대 변화의 흐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면서 “내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도 변화와 미래, 안철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승리를 자신했다.

안 후보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의 기자회견에서도 “(투표에서)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이긴다”며 “민심의 바다가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결과)를 뒤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어 당직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저는 확실한다. 항상 선거도 그랬고, 역사의 흐름도 그랬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변화를 택했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택했고, 끌리앗보다는 다했

많은 사람이 힘을 실어줬다”며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대전에서 이동한 안 후보는 “지금 민심의 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 유세지로 대선을 택한 것은 지정학적 중심에서 동서 지역을 통합하고 대덕연구단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대표적 과학기술 중심도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할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충청권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뒤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와 마포 흥대 인근의 한 카페에서 ‘국민 승리로 여는 미래’라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으로 선거 운동을 마무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洪, 부산~서울 경부선 유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8일 부산에서 출발해 경부선으로 서울로 이동하는 마지막 유세를 했다. 보수 본거지인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을 거쳐 충청을 지나 최대 표밭인 수도권까지 올라오는 일정이다.

홍 후보는 이날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홍 후보는 황금연휴 중반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부산역 광장으로 이동, ‘부산대첩’이라고 명명한 거점 유세를 했다. 이 유세에서 홍 후보는 ‘경비원의 아들’ ‘까막눈의 아들’로 대변되는 서민 이

미지를 적극 부각했으며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잘 있거라 부산항’ 등 노래 2곡을 연거푸 소화하는 등 친근한 이미지를 심는 데도 주력했다.

홍 후보는 곧바로 KTX를 타고 대구로 이동, 중구 동아쇼핑 앞 변화가에서 ‘대구·경북 대첩’ 거점 유세를 벌였다. 이후 대전 명소인 응봉정이 거리와 천안 터미널 앞 맥자골목에서 거점 유세에 나섰다.

홍 후보는 밤 10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과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다. 이후에는 선거운동 종료 시각인 자정까지 강남역과 흥대에서 젊은층을 상대로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였다.

劉, 젊은 표심 공략에 주력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8일 최대 표밭인 수도권에 집중했다. 특히 최근 지지율 상승의 원동력인 20·30대 젊은이들을 주로 만나며 ‘소신투표’를 호소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딸 담 씨와 함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충남대학교를 방문했다. 충청권은 당 지지 기반이 약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열기가 이곳으로도 확산하고 있다고 유 후보 측은 설명했다. 유 후보는 그동안 하던 대로 한 명 한 명을 중심으로 대화하며 같이 사진 찍고 인사하는 ‘일대일’ 유세를 이어갔다.

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저 사람이 될 것 같으니가 투표하는 것 그게 사표라고 생각한다”며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자기의 소신과 양심대로 투표하는 게 진정한 표이고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에 머물며 젊은층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갔다. 고려대 정경관 후문에서 학생들과 인사한 뒤 노량진으로 이동,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을 응원했다.

이후 유 후보는 직장인들이 많은 광화문 오피스지구에서 시민들을 만나 육아 휴직 3년과 ‘칼퇴근법’ 등 공약을 선선했다.

유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서울 명동에서 하고 이후 자정까지 흥대 앞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서 지지를 호소했다.

沈, 신촌서 12시간 촛불유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8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선거운동 종료시각인 자정까지 12시간 30분 동안 서울 신촌에서 ‘촛불 필리버스터 유세’를 했다.

‘촛불민심’을 지지표로 연결하겠다는 의도이자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의사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유세에 접목, 대선에서 기존 거대 정당 후보의 독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앞서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에서 출근 유세로 하루를 시작한 뒤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 마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를 방문했다.

심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심상정에게 투표해야 촛불 시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다”며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대로라면 여러분이 저를 통해 보여준 그 열망이 다시 사라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12시간 넘게 진행된 촛불 필리버스터 유세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복지 정책을 설명하고 적폐 청산과 개혁 실현의 완수를 호소했다.

또 선대위 주요 연사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발연대에 올라 ‘나의 이야기’를 말했다. 촛불집회 시 자유발언대를 되살린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www.joytour.kr

무안출발 일본여행

이 가격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친 특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발하는 일본여행
이제 무안에서 출발하세요

5월 21일, 5월 28일 단 2회!! 선착순 30명!!
4일 299,000원~

- 공통포함사항:편도항공, 편도선박, 현지차량, 일본현지식사
- 불포함사항:기사, 가이드경비(₩30,000/인), 국내수송(₩35,000/인)

美親특가 항공권 (공항세 및 유류세 포함)
매주 일요일 무안 출발 - 기타큐슈 편도 39,800 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JOY TOUR CO.,LTD

NAVER 조이투어 검색
TEL: 062-234-3222 FAX: 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대표이사 최금환

여행권비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항공료 포함 / 교통편:항공 및 전철역 / 상의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보험 가입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